



#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홍민지 연구원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 흡연율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최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흡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전체적인 흡연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험회사는 변화하고 있는 흡연 행태와 리스크에 주목하여 미국과 영국의 보험회사와 같이 정교한 흡연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흡연자의 사망 및 질병리스크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히 높기에 보험회사는 흡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비흡연자(100%) 대비 흡연자의 사망위험도는 164% 수준이며, 질병입원 및 질병수술 위험도 또한 각각 154%, 141%인 것으로 나타남<sup>1)</sup>
- 60세 남자 흡연자의 잔여 생존기간은 18.7년으로 비흡연자 26.6년 대비 7.9년 짧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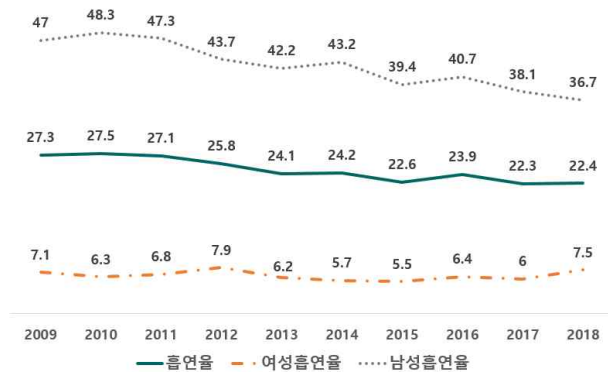
## ■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 흡연율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그림 1〉, 〈그림 2〉 참조)

- 2010년 27.5%였던 흡연율은 2018년 22.4%로 최근 8년간 꾸준히 감소함
- 2018년 남성 흡연율은 36.7%로 2010년 대비 11.6%p 감소하였으며, 여성 흡연율도 2015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상승하여 2018년 7.5%를 기록함
-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이후 상승하여 2018년 4.3% 수준이며, 감소하던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2.7%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성인보다 높은 5.7%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임<sup>2)</sup>

1) 보험개발원(2019. 5. 30), “(보험통계로 본) 흡연 여부에 따른 위험상대도 분석”; 2011~2017년 생명보험회사 정책보험·실손의료보험의 계약 및 사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통계량 불충분으로 여자를 제외함

〈그림 1〉 우리나라 흡연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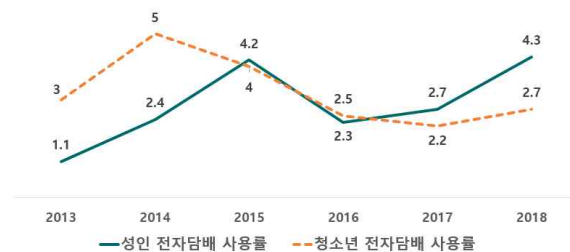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그림 2〉 우리나라 전자담배 사용률 추이

(단위: %)



주: 전자담배 사용자는 2013년부터 조사됨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2019), 「2018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최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흡연을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전체적인 흡연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중증 폐손상,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센터에서 원인 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 완료 시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함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자담배 액상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손상 유발 의심 물질이 발견되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힘<sup>3)</sup>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흡연자에 대한 보험요율 차등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건강인(우량체) 할인 특약을 통해 비흡연자의 보험료를 5~20% 할인해주고 있으나 통상 정상 혈압·체중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일부 보험회사의 일부 상품만이 특약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우량체 또는 비흡연자 할인 특약으로 비흡연자에 보험료 할인을 실시함<sup>4)</sup>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3) 관계부처합동(2019. 12. 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국내에 유통되는 153개 전자담배 액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및 가향물질이 발견됨. 연초 잎이 아닌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 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취급되지 않으며, 개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임

4) 日本經濟新聞(2017. 12. 2), “非喫煙者に割引保険料”; 日経プラスワン(2016. 12. 20), 生命保険料、健康なら安く 血圧や喫煙条件で割安に

- 반면, 미국과 영국은 흡연자에 대해 비흡연자와 상이한 사망률 및 보험요율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 대비 2배 가량 높은 보험료를 지불함

-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에서는 모델법 제정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망률 차이를 반영하여 차등화된 보험요율표를 적용하는 것을 허가함<sup>5)</sup>
  - 미국 5개의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명보험 요율을 비교한 결과 흡연자의 보험료는 비흡연자 대비 평균 215% 수준으로 나타남<sup>6)</sup>
- 영국에서는 생명보험 가입 시 흡연자가 비흡연자 대비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sup>7)</sup>

-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험요율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많은 보험회사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흡연자와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전자담배 사용자와 흡연자에게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난 12개월 이내에 전자담배만 사용한 경우 할인 요율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도 있음
- 2019년 10월 미국 푸르덴셜사는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흡연자 보험요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sup>8)</sup>

- 보험회사는 변화하고 있는 흡연 행태와 리스크에 주목하여 정교한 흡연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험생명표를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보험요율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5) <https://www.naic.org/store/free/MDL-812.pdf>

6) <https://www.valuepenguin.com/life-insurance-smokers>(검색일: 2019년 12월 27일); 35세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20년 만기의 생명보험 상품요율을 비교함. 표본 회사는 Northwestern Mutual, Prudential, Transamerica, New York Life, MassMutual임

7) ABI(2008. 1), "INSURANCE IN THE UK: THE BENEFITS OF PRICING RISK", p. 3

8) <https://www.cnn.com/2019/10/09/prudential-to-charge-higher-insurance-rates-for-people-who-vape-the-same-as-smokers.html>